

1973년 7월 4일 제71회 중의원 법무위원회

○ 일시: 1973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개의

○ 발언자:

- 아카마쓰 이사무(赤松勇)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대신(중의원 의원, 내각관방장관, 외무대신, 통상산업대신, 대장대신, 내각총리대신)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07105206X04019730704&spkNum=10¤t=11>

○ 해제(개요 및 특징)

아카마쓰 의원은 앞서 언급한 홋카이도에서의 조사 결과를 다시 상기하면서, 조선에서 끌려간 200여 명의 부녀자가 하코다테(函館)의 유곽에서 일본 광부들의 위안부로 무리하게 매춘을 강요당했고, 그중 일부는 자살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함. 역시 그 비인도성을 질타하면서 당시 일본제국의 식민지배의 침략성을 역설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번역

- ▷ 아카마쓰 위원 “(전략) 외무대신에게 이 기회에 묻겠습니다. 일본이 식민정책을 취하여 36년간 조선에 대한 식민정책, 그리고 국내에서 조선인을 학대한 것뿐만 아니라 조선반도 전 국토에 걸쳐 심각하게 자행된 침략행위, 그중에서도 야만적인 학살, 학대 등을 반복하였습니다. 전쟁 중 일본과 남방지역으로 강제연행된 조선인 수는 150만 명에 달합니다. (중략)

또한 조선에서 붙잡혀온 200명의 부녀자가 하코다테(函館)의 유곽에서 일본 탄갱부(炭坑夫)의 위안부로 무리하게 매춘을 강요당했습니다. 몇몇 부녀자가 투신자살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조선 및 중국에 대한 침략정책, 그 침략도 대단히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인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만행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군대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전쟁이 한창이던 중에 전쟁을 반대하다 형무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중략) 오히라(大平) 씨 당신은 차기 총재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한낱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일본이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계속하면서 조선인을 학대한 용서할 수 없는 인도적 범죄를 저질러 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나카 총리는 중국에 갔을 때 사과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략)

- ▷ 오히려 국무대신 “어두운 과거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